

황해 경제자유구역에 거는 기대



성기훈 | 충남발전연구원 이사 겸 중도일보 상임고문

지난 12월 21일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아산, 서산, 당진 지역을 포함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로 선정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과 그 중심에 충남도가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최근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며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누가 먼저 차지하는가는 국내외 대부분 수출기업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으며, 국가적으로도 21세기 핵심 발전전략과 결부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대련, 청도항과 최단거리일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대중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53%를 생산하는 대중국 교역 및 환적항으로서 최적의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반경 100km 이내에 서울, 인천, 대전, 군산이 위치하고 있어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고 고속도로, 철도 등 인프라가 확충되면 전국이 3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여 국내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최소한의 물류비용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입지적 장점 이외에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주변의 산업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고, 관계기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리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돼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향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경제권의 중요 거점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역할 차별화, 급속하게 치솟고 있는 지가의 안정, 환경 보호,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는 주변지역의 교육·의료·문화 수준 향상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앞서 지정된 부산, 광양, 인천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이 접근성과 교육, 의료 등 제반여건이 미흡해 외국기업의 유인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어두워진 서해안에 희망의 빛으로 떠오른 황해경제자유구역, 충청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